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9주일
제37권 38호(가해) 2017년 8월 13일

[묵상]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십니까?"

물위를 걷는 이도,
물에 빠진 이도 베드로이다.
대단한 사람 같은데 약한 면을 지니고 있고,
믿음이 굳건한 듯한데 의심이 많기도 하다.
솔직히 말해
베드로는 별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런 그가 오늘 감히,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기상천외한 행동을 한다.
물위를 당당하게 걸어난 것이다.
왜 갑자기 물위를 걷고자 했을까?

성급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의 성격 탓일까?
아니 스승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이다.
그것은 도전이며 자기 개방이다.

믿음은 나 자신을 하느님께 개방하도록 한다.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개방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머물고 말뿐이다.
신앙이 없다면,
남은 시문은 결코 '새로운 베드로'로 바뀔 수 없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310) 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 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형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 569-3940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임정자 분다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김영덕 다니엘 & 박현주 카타리나가정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우일환 모이세, 최경숙 수산나, 석순영 아네스, 김진엽 마리아, 박영식, 이효희 마리아 & 신현테, 김정례 수산나, 윤혜영, 강운운 요셉, 이영철 요셉, 임정자 분다, 이명자 로사, 홍다두 & 장테레사 & 신보나 파시오 & 송요안나 & 홍방지거 & 홍아오스딩 & 김요셉 & 신수산나 & 홍가스발 & 차마리아 & 박영진, 배정환 베드로 & 전길례 모니카, 코디스 김 수녀
	(생)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가정, 손석 스테파노, 백삼위성당의 모든 신자들, 백삼위 성당의 레지오단원들, 토서 2반원들, 복사단원과 지도교사의 가정, 이원석 프란체스코, 주일학교 밴드부원과 지도교사의 가정, 이영희 카타리나, 윤선희 로사 & 정광미 프란체스카, 최승원 아나스타시아, 김정희 마리아 & 김병태 요셉 & 박정희 마리아 & 박광식 바오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Kings) 19,9,11-13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정의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9,1-5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복음 마태오(Matthew) 14,22-33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II. 생물 다양성의 감소

33. 그렇지만 그러한 다양한 생물종 들을 그저 활용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만 여겨 그 고유한 가치를 간과해 서는 안됩니다. 해마다 수천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 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 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매우 많은 생물 종들이 사라졌 습니다.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생물 종 들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 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34. 포유동물과 조류들이 눈에 많이 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포유동물이나 새의 멸종을 알아채고 나면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균 류, 해조류, 벌레 무리, 파충류, 그리고 셀 수 없이 다양한 미 생물들이 필요합니다. 개체 수가 많지 않은 종들은 눈에 잘 띄이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생태 균형유지에 중요한 역 할을 합니다. 지구계가 위기 상태에 놓이면 인간이 개입해 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이라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과도해져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일으킨 재난이 새로운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인간이 모든 곳에서 활동하면서 그에 따르는 위험 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관여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 를 들어, 합성 농약 사용으로 사라진 많은 새들과 곤충들은 사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소멸된 새와 곤충 의 역할을 또 다른 기술이 대신 하겠지만 이 또한 유해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인간이 초래한 문제들의 해결 책을 찾으려고 값진 노력을 기울이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 면 인간의 개입 정도가 종종 기업의 이익과 소비주의를 위 한 것이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빈곤하고 추하 며 더욱 제한되고 음울한 것으로 만들고 소비재들이 넘쳐 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 할 수 없고 회 복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자신이 만들어 낸 것으로 대 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3	183	230
봉헌	259	259	272
성체	281	281	281
과전	194	194	194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순간, 거센 바람은 잦아들고 평화가 나를 감쌌니다

이른 새벽, 갈릴래아 호수에 맞바람이 불어 제자들이 탄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는 한 형상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하고 이르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두려워진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조금 전 파도에 휘둘리는 배에서 내려 몇 발짝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물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물에 빠져든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에 앞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시선을 놓친 베드로에게 거센 바람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 몇 발짝 옮기는 동안에도 거센 바람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베드로를 추락시킨 이 두려움의 실체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향해, 시시때때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늑음, 병듸, 죽음!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겨야만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추락시킬 두려움은 안팎으로 널려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전, 암 수술을 받았어야 했던 저에게 작은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받는 수술이기에 겁이 났습니다. 오전 9시 예정이었으므로,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드리며 주님께 의지하고자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심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저의 속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

속에서도, 수술이라는 상황을 놓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애를 쓰다가는 이내 수술이라는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들기를 반복한 ‘저’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이제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 그 어떠한 처지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얼마나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는냐는 나의 몫입니다. 요사이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놓치게 만드는 거센 바람은 무엇인가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순간, 거센 바람은 잦아듭니다. 평화가 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상처가 아물기까지

실수로 엄지 손가락 손톱을 너무 짧게 잘랐습니다.
가시가 박힌 것처럼 거슬렸으며
단추를 채우거나 리모컨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문득 통증이 없어 손가락을 보니
어느덧 하얗게 손톱이 자라나왔습니다.
겨우 손톱에 생긴 상처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 올라온 하얀 손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 이영 아비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야광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야광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프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은혜 클라우디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	정인욱 아오스딩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비스
제물봉헌자			PV 3반	제물봉헌자			토동 1반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15일 (화)아침 8시30분,
 저녁 7시30분
 8월15일(화)은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를 드리는 날입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1 박 2 일 백삼위 캠프

- 일시 : 9월 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4일(월) 10시 30분
- 대상 : 백삼위 한인 성당 교우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잔디 밭
- 참가비 : 가정당 \$ 20.- (1인 기준 \$ 5.-)
- 신청마감 : 8월 27일 오전 11시까지
- 인원 파악 및 예산 준비를 위한 기한이므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참가자 중 18세 이하는 Minor Permission & Release Form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호자와 함께 참가 하는 경우는 필요 없음.)
- 개인 준비물 : 침낭, 베개(웁션), 수건, 세면 용품
 옷 (1박 2일간 입을 옷, 수영복)
 리필 할 수있는 물병, 모자 또는 바이저, 선 스크린

◆ 요셉회 8월 정기모임

- 일시 : 8월20일(세제 주일) 11시 미사 후
-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백삼위 한인성당 성소후원회 발족 모임

백삼위 한인 성당 성소 후원회는 사제, 수도성소를 계발 육성하고, 사제, 수도성소자 양성에 따른 후원및 회원 공동체를 통한 사도직을 위한 단체입니다.

사제, 수도성소자들이 훌륭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성소후원회 활동에 많은 신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2017년 8월 20일(주일) 오후 12시 45분
- 장소: 강당
- 문의: 남 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제 30차 성령쇄신대회

- 주제: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 일시: 8월 26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 27일(주일)오전8시-오후6시
- 장소: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서강대 교수)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인천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최영배 비오 신부님 (들꽃마을 창설자)
- 참가비: \$20 (당일 현장 \$25)
- 준비물: 목주, 도시락,물
 (도시락주문 기능-8/13 주문마감, \$7/1개)
- 주의사항:장소 사정상 국물이 있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도시락은 장내 반입이 안되므로 바깥 텐트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문의: 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 8월13일 : 흥합미역국 (\$3, 토복: 성소 후원 기금마련)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김기정 김상규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윤진 김정순 김정아 김현숙 남명자 박경주 박씨니 방정복 배태임 손 석 신용섭 양영관 양영자 오신제 원건희 윤선희 이근도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임의웅 장영우 전동훈 정규숙 정동규 주대중 주용순 최기남 최기호 최동한 최재은 최태훈 한장환 현석주 홍영식	성전헌금	고천용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윤진 김현숙 남명자 박경주 박씨니 방정복 손 석 신용섭 양영관 양영자 원건희 윤선희 이근도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장영우 정규숙 주대중 주용순 최기남 최기호 최재은 최태훈 한장환
	합계:\$6,065		합계 : \$1,465
주일미사헌금 :\$2,292		2차헌금 :\$519.50	성물판매이익금 :529.50

◆ 성령대회 접수

- 티켓 판매와 도시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접수 마감: 8/13)

접수처: 사무실 앞 현관입구, 주일미사 전후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연락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ecks@gmail.com

남가주 소식

◆ 황창연 신부님 특강

- 일시: 8월 17일(목) 저녁 8시
- 장소: 성삼 성당 ☎ (323)221-8874
1230N. San Fernando Rd. LA, CA 90065
-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256-5708

◆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남가주 청년 성령기도회

KYCR New Life in the Holy Sprit Seminar

"Be Still" (Psalms46:11)

- 제목: 청년들을 위한 기초 성령세미나
- 일시: 8월 25일(금) 오후 5시~27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테레콜라 꽃동네 피정의 집
- 대상: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참가비: \$150(당일 현장 \$25)
- 문의: Jeane Yoon (562)676-7933,
김 모니카 ☎ (310)999-1142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9개월 과정)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 성서사십주간 하반기 개강

성서사십주간은 성경통독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2017년 8월 24일 - 12월 14일(매주 목요일)
오전반: 오전 10시 - 12시 / 저녁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과정: 구약 역사서(열왕기) - 시서와 지혜서
- 준비물: 성경, 필기구, 개인첩
- 회비: \$70(교재 별도구입)
- 장소: 남가주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제 19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시간 - 2017년 9월 10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 \$150 -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 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본부
- 연락처 - 이메일 <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 <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선착순 50명)

노공동체 8월 반모임

소 공 동 체 부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 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베히틸다 713-4926	오신재 베히틸다 8/16(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페트리치오 8/12(토)오후 6시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임순 테레사 8/5(토)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이재호 펠렉스 8/12(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우영희 엘리사벳 8/20(주일) 12시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테레사 755-8462	최옥희 테레사 8/18(금) 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재옥 로사리아 8/15(화) 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최미열 클라라 8/14(월)오후7시
	3	1,2반과 같음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8/13(주일) 오후5시 성당
	3	1,2반과 같음	
	4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오 스테파노(310) 756-7776 8/11(금) 오후7시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이재준 요한 8/19(토)오후 6시
	2	신혜정 로사 (213)369-0687	
	3	변복순 메로니카 592-6945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요셉회	
-----	--

☞ 감사합니다. ☜

◆ 2017년~2018년도 백삼위 본당에서도 제 단체가 새로 조직 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유임되었습니다. 그 동안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봉사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합니다.

2017-18 백삼위 제단체

단체	이름	본명	연락처
자모회장	김인자	요세피나	
부회장	이정님	안나	
총무	최채칠리아	아가다	
회계	김현정	헬레나	
서기	김지현	레오니아	
대건부부회장	장원철	안드레아	
성모회장	김금숙	안나	
부회장	권영옥	루치아	
총무	이기원	리디아	
회계	박은혜	클라우디아	
양업회장	박개순	도미니코	
부회장	김관기	라파엘	
총무	권병유	프란시스코	
회계	송미카엘	미카엘	
안나회장	한춘선	루치아	
부회장	이귀애	테레사	
총무	박영자	크리스티나	
요셉회장	정기은	비오	
빈첸시오회장	최기호	스테파노	
꾸리아 단장	남성철	베네딕도	
서기	김상규	니콜라오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부회장	이인석	비오	
총무 겸 재무	박지연	요안나	
서기	김윤진	카타리나	
울뜨레야 간사	손석	스테파노	
부간사	전복래	테레사	
총무	서용숙	에스텔	
회계	박은혜	클라우디아	
멜랑까 부장	김 명	스텔라	
홍보부장	김 준	방지거	
교문	이명순	크리스티나	
남성 봉사자	현석주	아오스딩	
여성 봉사자	남해나	베네딕다	
제대회장	윤경옥	실비아	
연령회장	최기남	야고보	
성소후원회	남성철	베네딕도	

제의의 색

오늘 신부님이 미사 때 녹색 제의를 입으셨지요. 그럼 지난 주일에 입으신 제의의 색깔은? 벌써 가물가물 하시다고요? 잘 떠올려보세요. 정답은? 흰색!

미사 때 사제의 제의 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전례 시기나 미사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양한 색의 제의는 전례의 특성이나 전례 시기별 지향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지요. 빛이신 예수님의 색이라 할 흰색은 지난주 기념한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과 부활 대축일, 성체 성혈 대축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등 거의 모든 주님의 대축일에 영광, 순결, 기쁨을 뜻하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또 성탄과 부활 시기, 성모 축일, 천사 축일,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도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붉은색은 주님의 열정적 사랑과 피를 상징하기에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성금요일, 그 밖의 주님 수난 관련 일에 입습니다. 붉은색은 성령의 색이자 신앙을 증명한 순교자들의 색이기도 하여 성령 강림 대축일과 순교자 축일에도 붉은색 제의를 입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녹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의 색입니다. 녹색은 전례력에서 '일상'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기념일, 축일, 대축일이 아닌 연중 시기에 사제는 희망과 깨어있음을 뜻하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보라색은 준비 또는 다른 차원으로 건너감을 뜻하기에 주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입습니다. 성탄이나 부활 대축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자는 의미겠지요. 장례 예식 때 보라색 제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부활의 삶을 위해서는 죽음 또한 건너가야 할 순간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므로 장례 미사, 위령 미사 때 입습니다. 요즘은 대개 검은색 대신 흰색 제의를 입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미색 제의는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일에 입습니다. 이제 곧 기쁜 때가 온다는 희망을 전해 주기 위해서지요. 마지막으로 금색 제의는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때 입는데 흰색, 붉은색, 녹색을 입는 전례 시기에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제의 제의 색만 보아도 그날 전례의 성격을 알 수 있으니 그에 합당한 마음 준비를 하면 좋겠지요.

Quiz 관련된 것을 연결해 보세요.

- | | |
|-----------|------------------------|
| 흰색 제의 ①. | ⑤ 참회와 보속,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
| 붉은색 제의 ②. | ⑥ 빛이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
| 녹색 제의 ③. | ⑦ 생명의 희열, 희망으로 깨어있는 일상 |
| 보라색 제의 ④. | ⑧ 뜨거운 사랑, 순교로 증명한 신앙 |

8월6일 자 정답: 십자성호, 하느님, 하느님, 머리, 입, 마음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30 거룩한 나무 아카시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카시아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건설에서 제단, 증거궤, 성막의 널판 등을 모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탈출 25,10 참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뒤 홍해를 건너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하느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한 품목에 아카시아 나무가 들어있다.(탈출 25,5 참조)

예수님이 처형되신 십자가 나무도 물론 가설이지만 성서적 근거로 볼 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보는 이도 있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보)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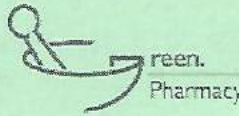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4228 Crenshaw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블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